

2009년 02월 10일 (화) 14:07 [뉴시스](#)

'전북문화재단' 설립... "정치적 결정안된다"

【전주=뉴시스】

10월 설립될 예정인 '전북문화재단' 설립과 관련, "정치적 고려보다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는 유창희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은 10일 제25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전북도는 현재 지역문화 예술인이 주체가 되는 문화정책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문화재단 설립 관련 연구용역을 마치고 절차를 거쳐 10월 전북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문화재단은 특히 단계적으로 ▲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도립국악원 등 3개 기관을 통합, 위탁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이러한 내용(3개 기관 통폐합)이 사실이라면 전북문화재단 설립이 출발부터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도립국악원과 소리축제조직위 운영 방향이 정치적 고려보다는 전북의 문화예술 발전 방향에 따른 실용적이고 현실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가 두개의 기관을 민간위탁 하고자 한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묻고 합법적 절차를 밟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문제점 여부를 파악하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화재단 설립은 전북의 문화예술진흥과 관련, 정책적 결정을 하는 역할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며 "적법하고도 타당한 절차에 따라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도민들과 함께 공청회 등을 통한 조례제정 절차를 걸쳐 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진흥 발전시켜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관련사진 있음 >

김민권기자 kmk@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